



# 그라운드의 봄...봄...

프로축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휴일인 14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쏘나타 K리그 2010 광주 개막전 광주 상무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상무 홈 개막전 2만 '열기'

K-리그 2010

종료 직전 최원권 동점골... 포항과 1대1

전남 백승민 2골... 대구 꺾고 첫승 신고

전남 드래곤즈가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고 광주 상무는 안방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다.

전남은 14일 오후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쏘나타 K-리그 2010' 3라운드 대구FC와의 경기에서 백승민의 2골과 인디오의 페널티킥 득점에 힘입어 대구를 3-0으로 격파했다.

전남은 백승민의 날이었다.

백승민은 경기 시작과 함께 지동원이 왼쪽에서 내준 크로스를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 44초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는 올시즌 최단 시간 득점이었다.

기선을 제압한 전남은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를 효율적으로 풀어 나갔고 전반 22분

백승민이 재차 추가골을 터트리며 사실상 승부의 쐬기를 박았다. 전남은 후반 21분 김명중이 상대 수비수 양승원에게 파울을 당하며 페널티킥 찬스를 얻었고 키커로 나선 인디오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이날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전남은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순위권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2만1360명의 관중이 몰려든 광주 개막전에서 광주는 이날 초반부터 포항을 강하게 압박하며 홈 개막전 승리의욕을 불태웠다.

전반 수시로 상대 골문을 두드렸던 광주는 골문이 따르지않아 전반을 0-0으로 마무

리했다. 선제골은 전남 실점위기를 여러차례 모면했던 포항이 터뜨렸다. 후반 22분 포항 박희철이 오른쪽에서 낮게 크로스한 볼을 알렉산드로가 다이빙 헤딩슛으로 골을 성공시켰다.

선제골을 허용한 광주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공격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골 운이 없던 광주는 휘슬이 울리기 직전까지 계속 포항을 공격했다. 그리고 후반 49분 골대 오른쪽에서 최성국의 전진패스를 받은 최원권이 낮게 슈팅하며 포항의 골대를 열었고, 패배의 수렁에 빠졌던 광주를 구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상무 최현규가 전반 15분 팀 동료의 크로스로 포항의 신화용 골키퍼와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KIA- 롯데 벌써부터 '기싸움'

프로야구 시범경기

주말 2연전 한치 양보없는 불꽃 승부

8천여 관중... 올 시즌 최고 흥행 예고

주말 무등경기장이 야구 열기로 들쭉였다.

KIA와 롯데의 시범경기가 열린 주말과 휴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8천 여명의 관중들이 찾아와 뜨거운 응원전을 보였다.

관중석만큼 그라운드의 열기도 뜨거웠다. 지난 13일 경기에서 양팀은 역전과 역전을 거듭하며 9회까지 5-5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도입됐고 연장 10회 3점을 뽑아낸 롯데가 8-6으로 승리를 거뒀다.

14일 경기에서는 팽팽한 마운드 싸움이 벌어졌다.

롯데 선발 이용훈은 4회까지 3피안타 1사구 무실점의 투구로 마운드를 지켰다.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 나선 KIA 양현종은 7이닝 동안 4피안타 1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골골 뚫었다. 6회 이대호에게 허용한 솔로홈런이 이날의 유일한 실점이었다. 배탈 증세 등을 보이며 전날 병원에서 주사까지 맞은 등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탈삼진도 6개를 기록했다.

피칭도 한층 섬세해졌다.

양현종은 첫 등판에서 5이닝 동안 93개의 공을 던졌던 것에 비해 14일에는 빠른 승부로 86개의 공으로 7회를 막아냈다.

투수전이 전개되면서 양팀은 8번의 공격에서 1점씩을 뽑는데 그치며 9회를 맞았다.

9회 초 KIA의 마무리 유동훈이 등판하자마자 선두타자 전준우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 박정준에게 볼넷을 내주며 무사 1·2루의 위기를 맞았다. 박준서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 유동훈은 문규현을 헛스윙 삼진으로 둘

려세운 뒤 이인규까지 삼진으로 요리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위기를 넘긴 KIA는 9회말 우익수 키를 넘긴 김상현의 3루타로 무사 3루를 만들었다. 대타 이종환이 팽볼로 물러난 뒤 타석에는 안치홍이 들어섰다.

6연승에 도전한 롯데는 안치홍을 고의사구로 걸러낸 뒤, 이정훈을 내리고 임경완을 투입하는 등 본 경기 못지 않은 팽팽한 분위

기를 연출했다. 14일 선발 출전 명단을 베스트 멤버로 구성했던 KIA도 대타 체중범을 내세우며 맞섰다.

결과는 체중범이 우중간을 가르는 끝내기 안타를 기록하면서 KIA의 승리로 끝났다.

프로야구 최고의 흥행카드인 KIA와 롯데는 시범경기에서부터 만만치 않은 기싸움을 하면서 올 시즌 흥미로운 승부를 예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오늘부터 시즌 티켓 판매

일반 28만원·지정석 55만원

KIA 타이거즈가 15일부터 시즌 티켓을 판매한다. 시즌티켓은 페넨트레이스 홈경기 67경기 중 군산 9경기를 제외한 58경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석은 28만원, 지정석은 55만원이다.

1인 판매가격 (일반석·7천원, 지정석·1만2천원)보다 각각 30%와 20% 할인된 금액이다.

외야 타자석인 스포티자석(1인 1만

5천원), 1루 타자석 쏘렌토R석(1인 2만원)도 20% 할인된 69만원과 92만원에 판매한다.

2만5천원하는 K7석(중앙 타자석 하단)의 경우에도 20% 할인된 14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시즌 티켓 구매자들에게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K7석 시즌티켓을 구매자에게는 무료 주차 서비스의 혜택도 주어진다.

시즌 티켓은 티켓링크 홈페이지(http://www.ticketlink.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청용 8번째 도움

EPL 한국인 최다 공격포인트

볼튼 골세레, 위건 4대0 완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이청용(22·볼턴 원더러스)이 8호 도움을 올리며 한국인 한 시즌 최다 어시스트 및 공격포인트 기록을 다시 썼다.

이청용은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각) 영국 볼턴 리복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2010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위건 애슬레틱과 홈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2-0으로 앞선 후반 8분 파브리스 무암바의 추가골을 도왔다. 이청용의 시즌 8호 도움,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도움 기록도 다시 썼다.

이청용의 올 시즌 공격포인트는 5골 8도

움으로 늘었다. 이 역시 이청용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계속 새로 써 내려가는 한국인 한 시즌 최다 기록이다. 이제 정규리그에서 기록한 공격포인트도 두자릿수(4골6도움)가 됐다. 이청용은 72분을 뛰고 승부가 기운 후반 27분 블라디미르 바이스와 교체됐다. 볼턴은 이날 전반 10분 요한 엘만더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케빈 데이비스, 무암바, 매튜 테일러의 연속골로 위건을 4-0으로 대파했다.

14위였던 볼턴은 8승8무14패(승점 32)가 돼 맨체스터 시티와 대결을 앞둔 선덜랜드(7승9무12패·승점 30)를 제치고 일단 13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